

출판계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한 평전,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평전 분야 역시 번역서에 의존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런 가운데 《백범 김구 평전》 《단재 신채호 평전》 《심산 김창숙 평전》 등 한국 근현대사에 굽직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의 평전을 선보인 사람이 있다. 독립기념관 김삼웅 관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 관장은 우리 근현대사의 걸출한 인물들을 오늘에 걸맞는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평전 저술은 내 운명”

백범과 단재, 심산 평전 연이어 선보여
영웅적 풍모 아닌 인간 냄새나는 평전 시도
한국 근현대사 20인 평전 출간 계획



김 관장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서 양심세력을 대변했던 〈사상계〉 기자로 글과 조우했다. 그러나 입사 직후 김지하 시인의 ‘오적’ 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사상계〉가 폐간당하면서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 야당 기관지로 자리를 옮겼고, 자연스레 민주화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투옥과 출소를 반복하며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김 관장은 지금도 두 달에 한 차례씩 병원을 찾고 있다.

독립기념관 존재 목적과 맥이 같은 저술, 평전

그가 〈대한매일〉(현 서울신문) 주필을 지낸데 이어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한 것은 2004년 10월. 요즘 김 관장은 침체되어 있던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을 찾는 이들에게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자 광장에 8·15를 상징하는 태극기 815개를 내걸었고, 해외에서도 우리의 독립운동사와 국난 극복사를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말끔히 단장했다. 8월에 있을 독립영화제는 김 관장이 새롭게 기

획한 야심작 중 하나인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병활동과 독립운동 관련 창작 단편들을 공모한다.

“국제화가 진척되면서 민족 고유의 문화 정체성이 퇴색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잦아지고, 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국난 극복사를 올곧게 전해주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독립기념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술하는 평전 작업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웅 관장은 퇴근 후 독립기념관 관사에서 집필에 몰두한다. 그 혼한 컴퓨터는 이용하지 않고, 원고지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집필하는 만큼, 그 수고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외국의 저명한 평전작가들은 ‘10년은 준비해야 제대로 된 평전 한 권을 쓸 수 있다’ 고 하는데, 김 관장은 그보다 오랜 〈사상계〉 시절부터 평전에 천착하고 있었다.

“그 시절부터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한국의 대표적 지식과 애국지사들 20명의 평전을 써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김 관장은 “그때부터 수집한 한국 근현대사 자료만 2만여 권”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주말 시간 대부분을 헌책방 순례에 할애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출장가면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도 바쁜 와중에 고서점들을 방문하는 일을 거르지 않는다.

“앞으로 한 20년 정도 시간이 남았을까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부지런히 자료도 수집하고 정리해야 개인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중요하지만 잘 모르는 우리 근현대사 인물들을 후배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겠죠.”

《심산 김창숙 평전》을 출간하고 곧 바로 시작한 《만해 한용운 평전》(가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가을부터는 전봉준 장군의 평전을 집필할 계획이다. 2009년은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으로, 그 전에 안중근 의사 평전도 출간할 계획이다.

학계와 언론계, '변방의식' 아쉬워

“지금에야 위인전이 다양해졌지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특색 없는 위인전 밖에 없었어요. ‘천재성을 보였다’, ‘어려서부터 강직했다’ 등 천편일률적인 내용이죠. 그러다보면 많은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인물임에도 거리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진면목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 거리감을 갖게 된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관장의 ‘평전론(論)’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멀찍이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위인의 풍모가 아니라, ‘인간 냄새나는 우리 선배들의 일상’을 평전을 통해 전해 주고 싶어 한다. 백범이 도움을 받았던 중국 여인이나, 만해가 연모했던 한 보살이 없었다면 위대한 민족 지도자 백범도 없었고, ‘님의 침묵’이라는 만해의 시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김 관장의 설명이다. “쌀 한가마니에 2원 하던 시절에 600원이나 되는 현상금이 걸렸던 백범을 도운 여인을 백범의 일대기에서 소홀히 다루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김 관장은 “중국 여인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백범의 업적이나 위대함이 훼손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 사람이 온전히 뜻을 이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말한다.

풍부한 자료가 평전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김 관장은 근현대사 기록의 부재를 아쉬워하면서도 지금부터 자료를 발굴하고 축적할 것을 강조한다. 그의 말마따나 ‘10년 묵은 장병에 5년 묵은 썩이 특효’라는 옛말과는 달리, 5년 묵은 썩이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썩을

묵히면 후대에 중요한 사료로 남을 것이라 얘기다.

“사실 우리 민족은 놀라운 기록문화를 가진 민족인데, 최근 100년 동안 지식인의 부재가 지금과 같은 현실을 낳은 것이죠. 자료가 없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작업을 병행해야죠.”

최근 평전 출판에서 김 관장이 아쉬워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외국 인물에 대한 평전이 나오면 열렬한 반응을 보이는 언론들이 국내 인물 평전에는 인색한 반응을 보이는 점이다. 채 계바라와 덩샤오핑 등에 비해 백범과 단재의 활동상이 그리고 철학과 지식, 역사관에서 모자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일제의 잔혹한 침탈과 압제를 생각하면 점수를 더 줘도 모자랄 지경이나 반응은 차갑다. 김 관장은 “한국 학계와 언론계가 외세지향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지식인들의 식민지 근성 혹은 변방의식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서글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백범·단재·심산·만해로부터 새로운 '시대 정신' 제시

“사람들이 혹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의 평전을 욕심내느냐’고요. 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스스로 그분들을 닮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고,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라고요.”

백범과 단재, 심산, 만해 등이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그가 평생을 걸쳐 사숙(私塾)해 온 사람들이기에, 지난 삶에서 그들을 닮고자 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체화(體化)하고 육화(肉化)하고자 했기에 감히 그들의 평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의병운동과 독립운동까지는 아니어도 한 평생을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이기에 “그들의 가르침과 삶의 유산을 달라진 오늘에 맞는 옷으로 입히고자 하는 시도를 누군가는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만해 한용운과 전봉준 장군, 안중근 의사의 평전 작업 외에도 독립운동가 박열의 재조명 작업과 김원봉, 장준하 선생 등의 평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지난 100년 동안 시대와 환경과 곁고 튼 길항 속에 민족적 사상과 사표를 잃어버린,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이데올로기에만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유의 갈래와 행동 양식을 제시하고픈 욕심 때문이라고 할까요.”

목천=취재 정동석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